16일 오전 경남 함안군 칠서면 강나루 생태공원에 조성된 작약꽃밭에서 방문객들이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. 함안군은 2018년 강나루 생태공원 2만3천㎡에 작약, 42만㎡에 청보리를 조성했고, 최근에는 관련 축제도 열었다. 연합뉴스이번 주말 부산지역은 5월 들어 처음으로 비구름 없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다.18일 부산기상청은 이날 부산, 울산, 경남지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.부울경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.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6℃, 울산 13℃, 경남 8~15℃로 어제와 비슷하겠다. 낮 최고기온은 부산 24℃, 울산 27℃, 경남 24~29℃로 어제보다 1~3℃ 높겠다.오늘까지 부산을 울산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55km/h(15m/s)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.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7℃, 울산 14℃, 경남 9~15℃로 평년과 비슷하겠다. 낮 최고기온은 부산 26℃, 울산 27℃, 경남 26~30℃로 평년보다 3~5℃ 높겠다.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.